

유란시아서

<< [제 76 편](#) | [부분](#) | [내용](#) | [제 78 편](#) >>

제 77 편

중도인

77:0.1 (855.1) 네바돈에서 사람 사는 세계들의 대부분은 하나나 그 이상 되는 집단의 독특한 존재들을 품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천사 계급 사이의 가운데쯤에 생명이 활동하는 수준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중도인(中道人)이라 부른다. 시간 세계에서 어쩌다가 생긴 듯하지만, 그들은 아주 널리 퍼져 있고 돕는 자로서 아주 소중하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성의 통합된 봉사에서 그들을 하나의 필수 계급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77:0.2 (855.2) 유란시아에는 뚜렷이 다른 두 계급의 중도자들이 활동한다. 1차 군단, 곧 선임 군단은 **달라마시아** 시절에 생겼고, 2차 군단, 곧 젊은 집단의 기원은 **아담**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 1차 중도자

77:1.1 (855.3) 1차 중도자들은 유란시아에서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독특하게 서로 연결된 데서 기원을 가진다. 우리는 다른 세계와 다른

체계에서 비슷한 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기법으로 생겨났다.

77:1.2 (855.4) 진화하는 행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달아 수여되는 것은 그 땅의 영적 질서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키고, 때때로 한 행성에서 영적 대리자와 물질 대리자들이 서로 관계하는 작용을 아주 수정하여,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영주 칼리가스티아** 참모진의 유형(有形) 참모 1백인의 지위는 바로 그러한 독특한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그들은 **예루셈**에서 하늘 가는 상물질 시민으로서, 자식 낳는 특권이 없는 초물질 인간이었다. **유란시아**에서, 행성에서 내려가서 봉사하는 자로서, (나중에 그들 가운데 더러가 그렇게 한 바와 같이) 그들은 물질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남녀가 구별되는 물질 인간이었다. 어떻게 이 1백 명이 초물질 수준에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유형 참모진의 남자와 여자가 초물질로 (성교 아닌 방법으로) 연결한 것은 처음으로 1차 중도자 자식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77:1.3 (855.5) 필사자와 천사(天使), 이 두 수준 중간에 있는 이 계급의 생물은, **영주** 본부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쓸모가 있으리라는 것이 즉시 발견되었고, 따라서 유형 참모진에서 각 쌍은 비슷한 존재를 생산하라고 허락을 받았다. 이 노력은 첫째 집단에서 중도인 50명을 낳았다.

77:1.4 (855.6) 이 독특한 집단의 일을 1년 동안 지켜본 뒤에, **행성 영주**는 제한 없이 중도자의 생산을 허가했다. 이 계획은 자식 낳는 힘이 계속되는 한 수행되었고, 따라서 최초 집단, 50,000명이 생겨났다.

77:1.5 (856.1) 각 중도자를 낳는 사이에 반년의 기간이 끼었고, 그러한 존재 1천 명이 각 쌍에게 태어나자, 결코 더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1천

번째 자식이 나타난 뒤에 어째서 이 힘이 소모되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더 실험해도 실패하기만 하고 아무 결과가 없었다.

77:1.6 (856.2) 이 생물은 **영주**의 행정에서 정보(情報) 군단을 구성했다. 그들은 두루 돌아다녔고, 세계의 종족들을 연구하고 지켜보고, 행성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주**와 그 참모진의 작업에 다른 소중한 봉사를 베풀었다.

77:1.7 (856.3) 이 체제는 행성에서 반란이 있던 비극의 시절까지 이어졌는데, 이 반란은 1차 중도자 가운데 5분의 4를 조금 넘게 덮게 걸리게 만들었다. 충성한 무리는 **멜기세덱** 관리자들을 위한 봉사에 들어갔고, **아담**의 시절까지, 이름만의 지도자인 **반**의 밑에서 활동했다.

2. 낯 민족

77:2.1 (856.4) 이것이 **유란시아** 중도인의 기원 · 성품 · 활동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두 계급 — 1차와 2차 — 사이의 친척 관계는, 행성에서 반란이 있던 시절부터 **아담**의 시절까지, **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유형 참모진의 모반 참모들로부터 내려온 혈통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1차 중도자 이야기를 중단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둘째 동산의 초기 시절에, 2차 계급 중도인(中道人) 조상의 절반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유전의 혈통이었다.

77:2.2 (856.5) **영주**의 참모진에서 육체를 가진 참모들은 그들의 특별 계급이 **안돈** 부족의 선택된 핏줄의 품질과 합쳐진, 통합 품질을 몸에 담은 자손을 낳는 계획에 참여할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다.

이 모두가 나중에 **아담**이 나타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생명 운반자들은 영주** 참모진의 합동 자손과 **아담**과 **이브**의 1대 자손의 연합을 포함하는, 새 종류의 필사자를 전에 계획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새 계급의 행성 인간을 예상하여 계획을 세웠고,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선생이자 통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한 존재들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거의 완전히 유산되었으니까, **유란시아**가 이처럼 인자한 지도력과 비할 데 없는 문화를 가진, 얼마나 훌륭한 귀족을 빼앗겼는지 우리는 결코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유형 참모진이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것은 반란이 있던 뒤, 그들이 체계의 생명 흐름과 연락을 빼앗긴 다음이었기 때문이다.

77:2.3 (856.6) 반란 이후 시대에 **유란시아**에는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위대한 문명 — **달라마시아**의 문화 — 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 시절에 **네비림**(**놋** 족속)이 땅에 있었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저희에게 아이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 아이들은 ‘옛날의 용사’요 ‘이름난 사람’이었더라.” 그 참모진과 그 초기 후손은 도저히 “신들의 아들들”이라 할 수 없어도, 그 아득한 시절에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이들을 그렇게 여겼다. 전통에 따르면 이들의 키조차 과장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땅에 내려와서, 거기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고대(古代) 영웅의 민족을 낳은 신들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민속(民俗) 이야기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전설은 둘째 **동산**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아담** 족속의 종족 혼합과 더욱 혼동하게 되었다.

77:2.4 (857.1) **영주** 참모진의 유형(有形) 참모 1백 명이 **안돈**의 인간 혈통의 생식질(生殖質)을 지녔으니까, 그들이 성교로 번식에 들어가면, 그 후손은 자연히 다른 **안돈** 족속 부모의 자손을 아주 닮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참모진에서 모반자 60명, 곧 **놏**을 따르던 자들이 실제로 성교로 번식에 들어갔을 때, 생겨난 아이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안돈** 족속과 **산직** 민족들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 판명되었다. 예기하지 않았던 이 탁월성은 육체와 지능의 품질만 아니라, 영적 능력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

77:2.5 (857.2) **놏** 족속의 첫 세대에서 나타나는 이 돌연 변이의 특성은 **안돈** 족속 생식질의 유전 인자(因子)의 배치와 화학적 구성 요소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로부터 생겨났다. 참모들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회로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 이 생명 회로는 특화된 **유란시아** 형의 염색체로 하여금 **네바돈**에서 예정한 생명 표현 중에 **사타니아** 특화의 표준화된 형태와 비슷하게 다시 조직하도록 만들었다. 체계의 생명 흐름의 작용으로 생식질을 변화시키는 이 방법은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X선을 이용하여, 식물과 동물의 생식질을 수정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77:2.6 (857.3) 이렇게 **놏** 민족들은 **안돈** 족속 기여자의 몸에서 유형 참모들의 몸으로 **아발론** 외과 의사들이 옮긴 생명질에서 일어난 변화, 어떤 특이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로부터 생겨났다.

77:2.7 (857.4) 생식질을 기여한 **안돈** 족속 1백인은 그 대신 생명나무를 보완하는 유기체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타니아** 생명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몸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참모진을 따라서 반란에 참여한 수정된 **안돈** 족속 44명도 자기들끼리 짝짓고, **놏** 민족의 상급 혈통에 크게 이바지했다.

77:2.8 (857.5) **안돈** 족속의 수정된 생식질을 지닌 104명을 포함하는 이 두 집단은 **놏** 족속의 조상을 이루며, 그들은 **유란시아**에 나타난 여덟째 종족이었다. **유란시아**에서 인간 생명의 이 새로운 모습은, 이것이

예기하지 않았던 발전의 하나라는 것을 제쳐 놓고, 생명 수정 세계로서 이 행성을 이용하는 최초의 계획이 작용하는 또 다른 국면을 나타낸다.

77:2.9 (857.6) 순수 핏줄의 **놏** 족속은 훌륭한 종족이었으나, 차츰 땅의 진화 민족들과 함께 섞였고, 얼마 안 되어 크게 질이 저하되었다. 반란이 있는 지 1만 년이 되자,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 종족들보다 거의 길지 않은 점까지 쇠퇴하였다.

77:2.10 (857.7) **놏** 족속의 후기 **수메르** 후손이 만든 진흙 서판 기록을 고고학자들이 파낼 때, **수메르** 왕들의 목록이 몇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개별 임금의 통치는 25년이나 30년에서부터 150년 이상으로 길어진다. 이 옛 왕들의 통치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옛날 **놏** 족속 통치자들 가운데 더러는 (**영주** 참모진의 직계 후손) 후일에 계승한 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왕조를 **달라마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장하려고 애쓴 것을 가리킨다.

77:2.11 (857.8) 그렇게 오래 산 개인들의 기록은 또한 시간을 재는 단위로서 달과 해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성서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리고 중국인의 옛 기록에서도 이것을 관찰할 수 있다. 28일로 된 한 달, 곧 한 기간을 나중에 소개된, 350일이 넘는 해와 혼동한 것이 사람이 그토록 오래 살았다는 전통에 책임이 있다. 9백 “해”가 넘도록 산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기간은 70년이 채 못되고, 그러한 생애는, 나중에 “고희(古稀)”라고 부르게 되었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대단히 나이 많은 것으로 여겼다.

77:2.12 (858.1) 한 달을 28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담**의 시절 이후로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에집트**인이 약 7천 년 전에, 달력의 개혁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아주 정밀하게 일을 했고, 365일로 된 1년을 소개했다.

3. 바벨 탑

77:3.1 (858.2) **달라마시아**가 물 밑에 가라앉은 뒤에, **놏** 족속은 북쪽과 동쪽으로 옮겨 갔고, 대번에 새 도시 **딜문**을 그들의 민족과 문화의 본부로 세웠다. **놏**이 죽은 뒤에 약 5만 년이 되어, **영주** 참모진의 후손이 새 도시 **딜문**을 바로 둘러싸는 땅에서 생계를 잇기에 너무 많아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뺨어 나가서 경계에 인접하는 **안돈** 및 **산직** 부족들과 서로 결혼한 뒤에, 그들 종족의 단결을 유지하려고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그 지도자들의 머리에 떠올랐다. 따라서 부족들의 회의가 열렸고, 많이 의논을 거친 뒤에, **놏**의 후손 **바블롯**의 계획이 승인되었다.

77:3.2 (858.3) **바블롯**은 그때 그들이 차지한 영토의 중심에 위세가 당당해 보이는 종족 찬양의 전당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전당(殿堂)에는 세계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탑을 세울 것이었다. 그 탑은 한때 그들이 위대했던 것을 기리는 대단한 기념비가 될 것이었다. 이 기념비를 **딜문**에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러는 그들의 첫째 수도 **달라마시아**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전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큰 건물은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7:3.3 (858.4) **바블롯**은 새 건축물이 앞날에 **놏** 족속의 문화와 문명(文明)의 중심에서 노른자가 되도록 계획했다. 그의 조언(助言)이 마침내 지배했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새 도시는

탑을 설계하고 건축한 자의 이름을 따서 **바블롯**이라고 이름 지을 것이었다. 이 위치는 나중에 **바블로드**로, 그리고 결국 **바벨**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77:3.4 (858.5) 그러나 **놏** 족속은 이 사업의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아직도 얼마큼 감정이 갈라져 있었다. 지도자들도 건축 계획이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하여, 전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4년 반 동안 일한 뒤에, 그 탑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에 관하여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 싸움이 아주 극심해서, 모든 작업이 중지되었다. 먹을 것을 나르는 자들이 분쟁의 소식을 퍼뜨렸고, 부족들의 큰 무리가 건축터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탑을 세우는 목적에 관하여,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제안되었다.

77:3.5 (858.6) 1. 가장 큰 무리는 거의 절반이었는데, 그들은 **놏** 족속의 역사와 종족 우월성을 기리는 기념비인 탑을 짓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 탑이 모든 미래 세대의 칭찬을 얻을 만큼 크고 위세 있는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77:3.6 (858.7) 2. 다음으로 가장 큰 당파는 **딜문**의 문화를 기념하도록 고안된 탑을 바랐다. 그들은 **바블롯**이 큰 상업 · 예술 · 제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77:3.7 (859.1) 3. 가장 적은 소수파는 탑을 세우는 것은 **칼리가스티아** 반란에 참여한 선조들의 어리석은 짓을 속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그 탑을 만민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데 바쳐야 한다, 새 도시의 목적 전부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 것 — 둘러싼 미개인들을 위하여 문화와 종교의 중심으로서 활동하는 것 —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7:3.8 (859.2) 종교적 집단의 의견은 재빨리 부결되었다. 대다수는 그들의 조상이 반란을 저지른 죄가 있다는 가르침을 부인했고, 그러한 종교적 낙인을 분개하였다. 그 논쟁의 세 관점 중에 하나를 처리하고, 다른 둘을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에 빠졌다. 종교파, 곧 비전투자들은 남쪽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달아났고, 한편 동료들은 거의 말살될 때까지 싸웠다.

77:3.9 (859.3) 약 1만 2천 년 전에 **바벨**의 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 족속의 혼합 종족들(**놏** 족속과 **아담** 족속)은 처음 구조의 폐허 위에 새 전당을 세우는 일에 착수했으나, 그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지원이 없었다. 그 사업은 허세부리는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무너졌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의 땅으로 알려졌다.

4. **놏** 족속 문명의 중심

77:4.1 (859.4) **바벨** 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싸움이 즉시 가져온 결과는 **놏** 족속의 분산이었다. 이 내란은 피가 순수한 **놏** 족속의 수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그들이 **아담**이 오기 전에 큰 문명을 세우지 못한 데 책임이 있었다. 이때부터 계속하여, **놏** 족속의 문화는 **아담**의 피가 주입(注入)되어 개량될 때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쇠퇴했다. 그러나 **아담**의 시절에도 **놏** 족속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에 중에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자 속에 끼었고, **반**의 무리에서 지휘관 몇 명은 **놏** 족속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이 종족에 속했다.

77:4.2 (859.5) **놏** 족속의 4대 중심 가운데 셋은 **바블롯** 투쟁이 있고 나서 즉시 세워졌다:

77:4.3 (859.6) 1. 서부, 곧 시리아의 놏 족속. 민족주의나 종족의 기념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머지는 북쪽으로 여행했고, **안돈** 족속과 뭉쳐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후일에 **놏** 족속의 중심을 세웠다. 이것은 흠어지는 **놏** 족속 중에서 가장 큰 무리였고, 나중에 나타나는 **아씨리아인**의 혈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77:4.4 (859.7) 2. 동부, 곧 엘람의 놏 족속. 문화와 상업을 주장하던 자들은 큰 떼를 지어 동쪽에 **엘람**으로 옮겨 갔고, 거기서 혼합된 **산깅** 부족들과 뭉쳤다. 3만에서 4만 년 전에 **엘람** 족속은 대체로 그 성품이 **산깅**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러싼 미개인들보다 우수한 문명을 줄곧 유지했다.

77:4.5 (859.8) 둘째 **동산**이 세워진 뒤에, 근처에 있는 이 **놏** 족속의 촌락을 “**놏의 땅**”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리고 이 **놏** 집단과 **아담** 족속 사이에 오랫동안 비교적 평화로웠던 기간에 두 종족이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아담 족속)**이 사람의 딸들(**놏** 족속)과 서로 짝짓는 것이 점점 더 풍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77:4.6 (860.1) 3. 중부, 곧 수메르 이전의 놏 족속.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던 작은 집단은 종족 통일성을 더 많이 유지했다. 그들은 몇천 년 동안 버티었고, 궁극에는 **아담** 족속과 섞여서 유사(有史) 시대에 **수메르** 민족을 세웠던 **놏** 족속의 조상을 이루었다.

77:4.7 (860.2)

이 모두가 어떻게 **수메르**인이 아주 갑자기, 신비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 무대에 나타났는가 설명한다. 학자들은 결코 이 부족들을 추적해서 **수메르**인의 시초까지 거슬러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수메르**인은 **달라마시아**가 바다에 가라앉은 뒤에, 20만 년 전에 기원을 가졌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기원을 가진 흔적이 없이, 이 고대의 부족들은 성전(聖殿)과 금속 가공, 농업·동물·도기(陶器), 천 짜기, 상법·민법전, 그리고 종교 예식과 오래 된 글 체계를 포함하여, 완전히 성장한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의 지평선에 갑자기 나타난다. 유사 시대의 초기에 그들은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고, **딜문**에서 기원을 가진 특이한 글쓰기 체계를 채택하였다. **수메르**어는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어도, **셈**어가 아니었다. 그 말은 이른바 **아리아인**의 언어들과 공통되는 것이 많았다.

77:4.8 (860.3)

수메르인이 남긴 정교한 여러 기록은, 옛날의 **딜문** 도시 가까이에, **페르시아** 만에 자리잡은 한 놀라운 촌락의 위치를 묘사한다. **에집트**인은 고대에 영화로웠던 이 도시를 **딜맛**이라고 불렀고, 한편 나중에 **아담**화되어 버린 **수메르**인은 첫째와 둘째 **놋** 족속의 도시를 **달라마시아**와 혼동하였으며, 셋을 모두 **딜문**이라 불렀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의 이 진흙 서판들을 발견했는데, 이 서판들은 “문명화되고 문화 생활의 본보기를 가지고 신들이 인류에게 처음에 복을 내렸던,” 땅에 있는 이 천국을 언급하였다. 사람과 **하나님**의 천국, **딜문**을 기술하는 이 서판들은 여러 박물관의 먼지 낀 선반에서 이제 말없이 쉬고 있다.

77:4.9 (860.4)

수메르인은 첫째와 둘째 **에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 족속과 널리 서로 결혼했는데도, 북쪽에 있는 **동산** 거주자들을 줄곧 외래 민족으로 여겼다. 더 오래 된 **놋** 족속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메르인의 마음은, **딜문** 시의 웅장함과 천국의 전통을 우대하여, 후일의 이 영광스러운 추억을 무시하도록 이끌었다.

77:4.10 (860.5) 4. 북부 낫 족속과 아마돈 족속 — 반 족속. 이 집단은 **바블롯**의 전투보다 이전에 생겼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낫** 족속은 **낫**과 그 후계자들의 지휘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의 지휘를 따른 자들의 후손이다.

77:4.11 (860.6) 초기에 **반**의 동료들 가운데 더러는 아직도 그의 이름을 지닌 호수의 물가 근처에 나중에 정착했고, 이 장소 근방에서 그들의 전통이 생겨났다. **아라랏** 산이 그들의 신성한 산이 되었고, **시나이** 산이 **히브리인**에게 가졌던 것과 대체로 같은 중요성을 후일의 **반** 족속에게 가졌다. 1만 년 전에 **아씨리아인**의 **반** 족속 조상은, 일곱 계명으로 된 도덕률을 **아라랏** 산에서 신들이 **반**에게 주었다고 가르쳤다. **반**과 그의 동료 **아마돈**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행성으로부터 산 채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77:4.12 (860.7) **아라랏** 산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신성한 산이었고, 이 옛 시절에 관한 너희 전통의 상당한 부분이 **바빌로니아인**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얻어졌으니까, **아라랏** 산과 그 지역이 **노아**와 널리 홍수가 있었다는 후일의 **유대인** 이야기에 섞여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77:4.13 (860.8) 기원전 약 35,000년에 **아담손**은 그의 문명 중심을 세우려고 가장 동쪽에 있는 옛 **반** 족속의 촌락들 가운데 하나를 방문했다.

5. 아담손과 라타

77:5.1 (861.1) 2차 중도자의 족보에 관하여 **놏** 족속 내력(來歷)의 윤곽을 그렸으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족보에서 절반인 **아담** 족속을 고려해야 한다. 2차 중도자들이 또한 **유란시아**의 보라 인종의 맏아들, **아담손**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77:5.2 (861.2) **아담손**은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땅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무리 속에 있었다. 자, **아담**의 이 맏아들은 **반**과 **아마돈**한테서 북쪽의 고지(高地)에 있는 그들의 집 이야기를 가끔 들었고, 둘째 **동산**이 세워진 뒤에 얼마 있다가 그가 어려서 꿈에 그리던 이 땅을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77:5.3 (861.3) 이때 **아담손**은 120살이었고, 첫째 **동산**에서 태어난 순수 핏줄의 아이 32명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남아서 둘째 **동산**을 발전시키는 데 부모를 돕고 싶어 했지만, 그의 짝과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크게 어수선했는데, 이들은 **최고자**들의 피보호자가 되기로 한 **아담**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두 **에덴시아**로 가기로 했다.

77:5.4 (861.4) **아담손**은 부모를 **유란시아**에 버리고 가지 않으려 했고,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달아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둘째 **동산**에서 가진 교제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초기에 방어하고 건축하는 활동을 추진하려고 많이 일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일찍 북쪽으로 떠나려고 걱정하였다. 비록 그의 출발은 온통 즐거웠지만, **아담**과 **이브**는 큰아들을 잃고, 그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낚설고 적대하는 세계로 보내는 것을 많이 슬퍼했다.

77:5.5 (861.5) 27명의 일행이 **아담손**을 따라서, 그가 어려서 꿈에 그리던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 3년이 조금 넘자 **아담손**의 일행은 실제로 그들의 모험의 대상이었던 그 목표를 찾아냈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스무 살 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자는 **영주** 참모진의 순수 핏줄을 가진 후예의 마지막이라고 주장했다. 이 여자 **라타**는 자기의 조상은 모두 **영주**의 몰락한 참모진 가운데 두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그 종족에서 마지막 사람이었고, 살아 있는 형제나 자매가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는 짝짓지 않기로 거의 작정했고,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거의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라타**는 당당한 **아담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라타**가 **에덴**의 이야기,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졌는가 들었을 때, 그리고 **동산**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라타**는 오직 한 가지 생각 — **아담**의 아들인 이 상속자와 결혼하려는 생각 — 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재빨리 **아담손**에게도 생겼다. 석 달이 조금 지나서 그들은 결혼했다.

77:5.6 (861.6) **아담손**과 **라타**는 아이가 67명인 가족을 거느렸다. 그들은 위대한 혈통을 가진 세계 지도자들을 낳았지만, 그보다 무엇인가 더 하였다. 이 두 존재가 정말로 초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마다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독특한 계급이었다. 그 넷째 아이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타**는 크게 걱정되었다 — 미신을 믿기까지 했다 — 그러나 **아담손**은 1차 중도자의 존재를 잘 알았고, 무언가 비슷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두 번째로 생겼을 때, 하나가 남자이고 하나가 여자였으니까, 그는 이들을 짝지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것이 2차 계급 중도자의 기원이다. 1백 년 안에, 이 현상이 그치기 전에, 거의 2천 명이 태어났다.

77:5.7 (862.1) **아담손**은 396살까지 살았다. 여러 번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보려고 돌아왔다. 7년마다 그와 **라타**는 남쪽으로 둘째 **동산**으로 여행했고, 그동안에 중도자들은 그의 민족의 복지에 관하여 그에게 정보를 알려 주었다. **아담손**의 일생 동안에 그들은 진실과 올바름을 찾는 새롭고 독립된 세계 중심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봉사했다.

77:5.8 (862.2) **아담손**과 **라타**는 이렇게 이 놀라운 조수(助手) 군단을 지휘하였고, 그들은 상급의 진실을 퍼뜨리는 데, 또 높은 영적 · 지적 · 육체적 생활 기준을 퍼뜨리는 데, 오랜 생애에 걸쳐서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세상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는 후일의 후퇴로 인하여 결코 완전히 빛을 잃지는 않았다.

77:5.9 (862.3) **아담손** 족속은 **아담손**과 **라타**의 시절부터 거의 7천 년 동안, 높은 문화를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은 이웃의 **놏** 족속과 **안돈** 족속과 섞이게 되었고, 또한 “고대의 힘센 사람들” 사이에 끼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진보의 얼마큼은 지속하여 후일에 **유럽** 문명으로 꽃핀 문화적 가능성의 잠재 부분이 되었다.

77:5.10 (862.4) 이 문명의 중심은 **코펫** 닥 가까이, **카스피** 바다의 남단(南端)의 동쪽 지역에 자리 잡았다. **투르키스탄**의 구릉 지대에서 조금 올라가서, 한때 보라 인종의 **아담손** 족속의 본부였던 것의 자취가 있다. **코펫** 산맥의 낮은 구릉 지대에 놓인, 좁고 비옥한 옛 지대에 자리잡은 이 고지의 터에서, 여러 기간에 연달아 네 가지 다채로운

문화가 일어났는데, 각기 다른 네 집단의 **아담손** 후예가 이것들을 육성하였다. 그들 가운데 둘째 집단이 서쪽을 향하여 **그리스**와 지중해의 섬들로 옮겨갔다. **아담손**의 후예의 나머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마지막 **안드** 인파의 섞인 핏줄과 함께,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해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들도 또한 인도를 침입한 **안드-아리아** 족속 사이에 끼었다.

6. 2차 중도자

77:6.1 (862.5) 1차 중도자들은 거의 초인간 기원을 가졌으나, 2차 서열은 순수한 **아담** 족속의 핏줄이, ^[77] 선임 집단의 부모인 공통된 조상의 후손, 인간화 된 후손과 뭉쳐서 생긴 자손이다.

77:6.2 (862.6) **아담손**의 아이들 가운데 2차 중도자의 특이한 조상이 꼭 16명 있었다. 독특한 이 아이들은 남녀별로 똑같이 나누어졌고, 각 쌍은 성의 결합과 비성(非性) 결합을 이용하는 통합 방법으로 70일마다 2차 중도자 하나를 낳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땅에서 그 전에 결코 가능하지 않았고, 그 뒤에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없다.

77:6.3 (862.7) 이 아이들 열 여섯 명은 (그들의 특이한 점을 제외하면) 그 땅의 필사자로서 살다가 죽었으나, 전기로 에너지를 받는 그들의 자손은 줄곧 살아 있으며, 필사 육체의 한계에 지배되지 않는다.

77:6.4 (862.8) 여덟 쌍은 각자 궁극에 중도자 248명을 낳았고, 이렇게 최초의 2차 군단 — 1984명 — 이 생겨났다. 2차 중도자에는 여덟 가지

하위 집단이 있다. 이들은 A-B-C 첫째 · 둘째 · 셋째,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리고 나서 D-E-F 첫째 · 둘째,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77:6.5 (862.9) **아담**의 실패가 있는 뒤에 1차 중도자들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되돌아갔고, 한편 2차 집단은 **아담손** 중심에, 그가 죽을 때까지 부속되었다. 이 2차 중도자 가운데 33명, 즉 **아담손**이 죽었을 때 그들 조직에서 우두머리였던 자들은 그 계급 전부를 **멜기세덱**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휩쓸고 가서, 1차 군단과 연결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동료들을 버리고 행성 관리자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단체로 넘어갔다.

77:6.6 (863.1) **아담손**이 죽은 뒤에, 나머지 2차 중도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이상하고 조직되지 않은 채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영향력이 되었다. 그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시절까지, 그들은 불규칙하고 조직되지 않은 존재를 이끌어 왔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이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절까지 여전히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 **미가엘**이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은 모두 앞날의 운명에 관하여 마지막 결정을 내렸고, 충성스러운 대다수는 그때 1차 중도자들의 지휘를 받으려고 지원하였다.

7. 반역한 중도자

77:7.1 (863.2) 1차 중도자들의 대다수는 **루시퍼** 반란이 터졌을 때, 죄에 빠졌다. 행성 반란의 참상이 계산되었을 때, 다른 손실 가운데도, 최초의 50,000명 가운데 40,119명이 **칼리가스티아** 탈퇴에 참가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77:7.2 (863.3) 최초에 2차 중도자의 수는 198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와 제휴하지 못했고, 오순절 날에 **유란시아**가 행성 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구금되었다. 아무도 이 타락한 자들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다.

77:7.3 (863.4) 두 집단의 반역한 중도자들은 체계 반란 사건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행성 섭리 시대가 개시되기 전에, 땅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

77:7.4 (863.5) 이 불충한 중도자들은 어떤 상황에 필사자의 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비엘세붓**의 동료들에게 이것이 특히 참말이었는데, **비엘세붓**은 배신한 2차 중도자들의 두목이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생물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땅에 또한 있던, 어떤 반역한 케루빔 및 세라핌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옛날 저자들 가운데 더러는 이 반역한 중도인을 악령과 악마라 불렀고, 배반한 세라핌을 악한 천사라 불렀다.

77:7.5 (863.6) **파라다이스** 수여 아들이 일생을 산 뒤에, 어느 세계에서나 악한 영들은 어떤 필사자의 지성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있던 시절 이전 — **생각 조절자**들이 보편적으로 오고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퍼부어지기 전 — 에 이 반역 중도자들은 실제로 어떤 열등한 필사자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고 얼마큼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조절자**가 초인간 지성 존재들과 연락하는 동안에, 인격으로부터 사실상 떨어져 있을 때 충실한 중도인이 **유란시아** 운명 예비군의 인간 지성과 접촉하는 유능한 보호자로서 일할 때 작용하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77:7.6 (863.7) “그리고 저희가 그에게 온갖 종류의 아픈 군중을 데리고 왔더니, 저희는 귀신 들린 자와 미친 자들이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단지 비유적 표현은 아니다. **예수**는 미친 것과 악령에 들린 것의 차이를 알고 헤아렸다. 하지만 그 시대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이 두 상태는 크게 혼동되었다.

77:7.7 (863.8) 오순절 이전에도, 어떤 모반한 영도 정상 인간의 지성을 지배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열등한 필사자의 허약한 지성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도무지 없다. **진실의 영**이 도착한 뒤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한 것은 귀신 들린다는 관념을 히스테리·광기(狂氣), 정신 박약과 혼동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미가엘**의 수여가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성이 귀신에 들릴 가능성에서 영원히 해방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옛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상상하지 말지어다.

77:7.8 (864.1) 반역한 중도자 무리 전체가 현재 **에덴시아 최고자**들의 명에 따라서 죄수로 붙들려 있다. 그들은 이제 더 짓궂은 심술로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니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의 계심과 상관없이, **진실의 영**을 모든 육체에 퍼붓는 것은 어떤 종류나 모습의 불충한 영들이 가장 박약한 인간 지성조차도 다시 한 번 침입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오순절 이후로 귀신 들리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8. 연합한 중도자

77:8.1 (864.2) 최근에 이 세상의 판결이 있을 당시에, 잠자고 있던, 시간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미가엘**이 옮겼을 때, 중도인들이 뒤에 남게 되었다. 행성의 영적 일과 반(半) 영적 일을 돕기 위하여 남은 것이다. 그들은 이제 두 계급을 포함해서, 10,992명에 이르는 단일 군단으로서 활동한다. 현재 각 서열의 선임 회원이 번갈아서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을 다스린다. 오순절 뒤에 조금 있다가 한 집단으로 통합된 뒤로, 이 체제가 생겼다.

77:8.2 (864.3) 더 나이 든 서열, 곧 1차 서열은, 대체로 숫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1-2-3 첫째, 4-5-6 첫째, 이런 따위의 이름을 흔히 받는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의 숫자 명칭과 구별하려고, 알파벳 순서로 부른다.

77:8.3 (864.4) 두 계급은 영양과 에너지 흡수에 관해서 비물질 존재이지만, 그들은 인간의 특성을 많이 가졌으며, 너희의 예배만 아니라 유머도 즐기고 알아들을 수 있다. 필사자에게 딸려 있을 때, 그들은 인간의 일하고 쉬고 노는 정신에 젖는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잠을 자지 않으며, 자식을 낳는 능력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2차 집단은 남자답고 여자다운 모습에 따라서 구별되며, 흔히 “그” 또는 “그 여자”로 언급된다. 그들은 흔히 그런 쌍을 이루어 일한다.

77:8.4 (864.5) 중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지만, 2차 중도자의 성품은 천사보다 사람에게 가깝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너희 종족의 출신이며, 따라서 인간 존재와 접촉할 때, 대단히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있다. 그들은 인류의 여러 종족을 위해서, 또 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세라핌에게 소중하며, 두 계급은 필사자에게 개인 수호자로 일하는 세라핌에게 필수이다.

77:8.5 (864.6)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타고난 자질과 얻은 기술에 따라서, 행성의 세라핌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다음 집단으로 조직된다:

77:8.6 (864.7) 1. **중도 사자**. 이 무리는 이름을 가진다. 그들은 작은 무리이며, 빠르고 믿을 수 있게 개인적 의사를 전하는 봉사에서 진화 세계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77:8.7 (864.8) 2. 행성 파수꾼. 중도자는 공간 세계의 수호자요

파수꾼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초자연 존재들에게 중요한, 수많은 현상과 종류의 통신 모두를 위하여 중요한 관찰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행성의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을 순찰한다.

77:8.8 (865.1) 3. 접촉 성격자. 이 통신문을 전달하는 데 쓰인 주체의 경우처럼, 물질 세계의 필사 존재들과 접촉하는 데, 중도인이 반드시 쓰인다. 그들은 영 수준과 물질 수준을 그렇게 연결할 때 필수 요소이다.

77:8.9 (865.2) 4. 진보 조수. 이들은 중도인 가운데 영적으로 더 높은 자이며, 그들은 행성에서 특별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는 여러 계급의 세라핌에게 조수로서 분배된다.

77:8.10 (865.3) 중도자들은 위로 세라핌, 아래로 인간 사촌과 접촉하는 능력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1차 중도자들은 물질 대리자와 바로 접촉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그들은 천사 종류의 존재에 훨씬 더 가깝고, 따라서 행성에서 주둔하는 영적 세력과 함께 일하고, 그에 봉사하는 데 보통 배치된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방문자와 학생 체류자들을 동반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행동하며, 한편 2차 생물은 그 영역의 물질 존재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데 거의 순전히 부속된다.

77:8.11 (865.4) 충성하는 2차 중도자 1111명은 땅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1차 동료들과 견주어서, 그들은 확실히 물질적이다. 필사자의 시야(視野) 바로 바깥에서 존재하며, 사람들이 “물질적 사물”이라 부르는 것과 마음대로 육체적 접촉을 하기에 충분한 범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 독특한 자들은 그 영역의 짐승도 제외하지 않고 시공(時空)의 사물에 대하여 어떤 분명한 능력을 지닌다.

77:8.12 (865.5) 천사들의 탓으로 돌리는, 글자 그대로 일어난 많은 현상은 2차 중도인이 해낸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던 초대의 선생들을 그 시절의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던졌을 때, 실제로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러나 **헤롯**의 명령에 따라 **야고보**가 죽은 뒤, **베드로**가 구출된 경우에, 천사의 탓으로 돌린 일을 행한 것은 2차 중도자였다.

77:8.13 (865.6) 오늘날 그들의 주요한 일은, 행성의 운명 예비군을 구성하는 남녀에게, 인식되지 않는 채 몸소 연락하는 동료로서 하는 일이다. 행성의 하늘 감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탄원의 시작을 마침내 유도하도록, **유란시아**에서 성격자들 및 상황의 조정을 일으킨 것은 이 2차 집단이 한 일이었고, 1차 군단의 어떤 자들이 이를 훌륭하게 지원하였다. 이러한 탄원은 일련의 계시를 가능하게 만든 명령을 내리게 했으며, 이 발표는 그 계시의 일부이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강신술”(降神術)이라는 일반 명칭 아래에서 행해지는 더러운 연기(演技)와 관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현재 **유란시아**에 있는 중도자들은, 모두 명예로운 신분을 가졌고, 이른바 “영매(靈媒) 능력”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없다. 그들은 때때로 필요한 물리적 활동을 하거나 물질 세계와 달리 접촉하는 것을 인간의 감각이 깨닫는 것처럼 인간이 구경하는 것을 보통 허락하지 않는다.

9. 유란시아의 영구 시민

77:9.1 (865.7) 필사 인간과 같은 진화된 승천자와 천사 무리와 달리, 중도자는 여러 우주에 두루, 여러 서열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첫째

집단의 영구 거주자로 간주해도 좋다.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면서 여러 군데서 그러한 영구(永久) 시민들과 마주치게 된다.

77:9.2 (866.1) 행성에서 봉사하라고 배치된 여러 계급의 하늘 존재들과 달리, 중도자들은 사람이 거하는 세계에서 산다. 세라핌은 오고 가지만, 중도인은 남아 있고,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 행성에 토박이이기 때문에, 그들은 봉사자요, 천사 무리의 변하는 행정을 조화시키고 연결시키는, 하나의 계속하는 체제를 마련해 준다.

77:9.3 (866.2) **유란시아**의 실제 시민으로서, 중도자들은 친척으로서 이 구체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들이 태어난 행성의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는, 굳게 결의한 단체이다. 그들 계급의 표어가 그 각오를 암시해 준다: “**연합 중도자들은 착수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77:9.4 (866.3) 에너지 회로를 통과하는 능력은 어떤 중도자도 행성을 떠날 수 있게 하지만, 우주 당국이 언젠가 해방할 때까지 그들은 행성을 떠나지 않기로 개인별로 서약했다. 중도자들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는 시대까지, 한 행성에서 닳을 내린다. 1-2-3 첫째를 제외하고, 충실한 중도인은 아무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77:9.5 (866.4) 1차 계급에서 가장 위인 1-2-3 첫째는, 오순절 뒤에 곧, 행성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풀려났다. 이 고귀한 중도자는 행성에서 반란이 있던 비극의 시절에, **반과 아마돈**과 더불어 굳건히 지켰고, 겁 없는 지도력은 그의 서열에서 희생자를 줄이는 데 힘이 되었다. 그는 현재 **예루셈**에서 24 상담자의 일원으로서 근무하며, 오순절 이후로 한 번, **유란시아**의 총독으로서 이미 활동한 적이 있다.

77:9.6 (866.5) 중도자는 행성에 묶여 있지만, 필사자가 멀리서 온 여행자와 이야기하고 행성의 먼 지방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중도자는 우주의 먼 장소에 관하여 배우려고 하늘 여행자들과 대화를 가진다. 이래서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 아니 **오르본톤**과 그 자매 창조들에 관해서도 정통하게 되며, 이렇게 그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상급 수준에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준비한다.

77:9.7 (866.6) 중도자는 완전히 발육된 채로 — 미숙한 상태에서부터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 — 생겨나지만, 지혜와 체험 면에서 결코 성장(成長)을 그치지 않는다. 필사자처럼 그들은 진화하는 생물이요, 진정하게 진화로 성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란시아** 중도자 군단에는 위대한 지성과 막강한 인물이 많이 있다.

77:9.8 (866.7) 더 넓은 각도에서 보면, **유란시아**의 문명은 **유란시아**의 필사자와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이 공동으로 지은 작품이다. 그리고 두 문화 수준 사이에 현재 차이가 있어도 이것은 참말이며, 이 차이는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는 시대가 오기까지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77:9.9 (866.8) 중도자의 문화는 죽지 않는 행성 시민 계급의 산물이니까, 인간의 문명을 성가시게 하는 현세의 변천에 비교적 면역이 되어 있다. 사람의 세대는 잊어버린다. 중도자 군단은 기억하며, 그 기억은 사람이 사는 너희 세계의 전통을 간직하는 보물 창고이다. 이렇게 한 행성의 문화는 늘 그 행성에서 남아 있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이 육체를 입은 사촌(四寸)들에게 전한 것과 같이, 적당한 상황에서 지난 날의 사건들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한 기억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7:9.10 (867.1) 중도자는 **아담**과 **이브**가 죽고 나서 **유란시아**의 물질적 사무와 영적 사무 사이에 생긴 틈을 보상하는 솜씨 있는 봉사자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너희의 형이요, **유란시아**에서 안정된 빛과 생명의 지위를 얻으려는 오랜 투쟁에서 전우이다. **연합 중도자**들은 반란의 시험을 거친 집단이며, 이 세상이 오랜 세월 동안 바라던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사실로 평화가 땅에서 다스리고 진실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의가 생길 아득히 먼 그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77:9.11 (867.2) 이 중도자들이 행하는 귀중한 일 때문에, 그들이 영역의 영적 체제에 참으로 긴요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반란이 행성 사무에 상처를 내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세라핌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된다.

77:9.12 (867.3) 높은 영, 천사 무리, 중도(中道) 친구들의 조직 전부가, 진화하는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완전을 이룩하는 **파라다이스** 계획을 촉진하는 데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이것은 필사자와 중도자를 위하여 똑같이, 우주에서 하늘 같은 사업이다 — **하나님**을 사람에게 모셔오고, 다음에 숭고한 종류의 협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봉사하고 신성한 성취가 있는 길로 데리고 가는 계획, 살아남게 하는 숭고한 계획이다.

77:9.13 (867.4)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발표했다.]

[77]: 77:6.1 1차 중도자들의 공통된 조상 60명과 조수 44명은 **달리가스티아**의 명으로 자기들끼리 인간 자식을 낳았다.
